

울산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류 현 주*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박사과정)

김 선 중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교수)

본 연구는 노인복지법 상의 시설기준을 통하여 울산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준을 살펴보고 개조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조사대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현황과 시설의 공간용도 전환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통하여 연구경향과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설공간용도 전환실태 및 사용실태 등은 각 시설의 담당자와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내용은 현장조사와 도면자료를 중심으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의거하여 분석항목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시설기준의 항목 중 거주실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들이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상담실은 상담실이 아닌 거주실에서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화장실의 경우 거주실내 위치하여 편리성을 높였으나 사용인원에 문제가 있는 곳이 나타났으며, 그 외 다른 실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규정에 맞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울산의 조사대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상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대부분 적합하게 계획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시설허가에 적합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 노인의 거주성과 활동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정한 실의 확보를 통하여 거주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들의 대부분이 실의 사용을 거주자들의 편의와 자활 보다는 보조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나 이로 인하여 노인 거주자들의 프라이버시와 생활시 불편이 야기되어 지고 있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들의 특성을 배려한 시설규정과 시설배치에 대한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허가에 적합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 노인의 거주성과 활동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정한 실의 확보를 통하여 거주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특수시설로서 그 환경에 맞는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